

지역 소식통

정읍시 체육시설 점검

정읍시가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지역사회 확산을 억제코자 시에 등록·신고된 체육시설 1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자체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최근 열악한 환경에서 집단 발생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헬스장·태권도장 등에 대해 적극적인 현장 지도에 나서 지역 사회 감염을 예방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시는 지역 내 헬스장 10개소, 당구장 31개소, 실내의 골프장 15개소, 태권도장 30개소 등 체육시설 총 102개소를 대상으로 해당 시설에 살균 소독제와 코로나 예방 포스터를 배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현장행정 추진

권익현 부안군수는 코로나19 맞서 내실 있는 현장 행정을 이어나가고 있다.

부안군은 코로나19로 인해 자칫 시기를 놓쳐 주요 사업들의 추진이 지연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행정사항 위주의 내실 있는 현장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권익현 군수는 지난 13일 지방정원사업과 대형 아파트 건설현장 등을 찾아 향후 발생 가능한 문제 등을 점검했다. 특히 부안지방정원 조성사업 현장을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매력적인 생태공간으로 조성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 청보리밭 축제' 연기

'고창군 청보리밭 축제추진위(이하 추진위)'가 전날(12일) 오후 긴급회의를 통해 코로나19의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당초 4월18일 예정되었던 '제17회 유채꽃과 함께하는 고창청보리밭 축제'를 잠정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추진위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준비상황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야의 혼선에 대비하기 위해 입장 발표가 필요한 시점이었다.

잠정적으로 5월로 연기하고, 3월말 코로나19 감염확산 추이 등을 지켜보며 4월초에 다시 회의 후 결정하기로 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성 깃든 면마스크 나눔

정읍시 여성문화관 양재반 수강생들 재능기부 농촌지역 어르신·사회 취약계층에 무상 공급

코로나19 여파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읍 시민들이 직접 면 마스크를 만들어 보급에 나섰다.

정읍시는 여성문화관 양재반 교육과정 수강생 등 20여 명의 시민이 마스크를 구하기 힘든 농촌 지역 어르신들과 취약계층을 위해 천 마스크를 직접 제작해 보급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번 면 마스크 제작에 참여하는 봉사자들은

마스크 품귀현상에 대한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한마음으로 봉사에 동참했다.

봉사자들은 어르신과 취약계층의 건강을 바라는 마음으로 3겹짜리 면 마스크 1만 매를 제작해 보급할 계획이다. 재단 기술을 가진 봉사자가 원단을 치수에 맞게 재고 자르면, 재봉 기술을 가진 봉사자가 이를 받아 바느질

하며 마스크를 완성한다. 이번 제작되는 마스크는 세탁을 통해 재사용하며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면 마스크다. 시는 면마스크 사용도 도움이 된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스크 사용 권고에 따라 감염 우려가 크지 않거나 보건용 마스크가 없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완성된 마스크는 읍·면사무소와 주민자치센터 등을 통해 지역 내 농촌 지역 어르신을 비롯한 사회 취약계층에게 무상 공급할 계획이다.

일일이 수작업으로 만들기 때문에 생산량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운 주민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진섭 시장은 지난 12일 마스크 제작 현장을 찾아 봉사자들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유 시장은 "어려운 시기에 재능기부 자원봉사에 나서 주신 시민들과 후원해 주신 후원자에게 감사드립니다"며 "지역을 위해 베풀어주시 따뜻한 마음으로 모두가 큰 힘을 얻고 사태가 빨리 해결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시도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총출력한 안전망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마스크 제작에 필요한 예산은 정읍시가 지원하며 모두량 생화탕 정경숙 대표는 마스크 제작에 사용되는 천 1,000매(약 350만 원 상당)를 후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 여성문화관 양재반 교육과정 수강생 등 20여 명의 시민이 마스크를 구하기 힘든 농촌 지역 어르신들과 취약계층을 위해 천 마스크를 직접 제작해 보급한다.

“코로나 위기 극복” 잇단 응원 물결

정읍물차연합회 등 성금 기탁

정읍시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각 계각층의 따뜻한 후원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 내 1972년생(임자년생) 친목 모임인 임자회(회장 김우섭)는 지난 13일 정읍시청을 방문해 성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

김우섭 회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응원하고 위기상황을 함께 극복하자는 뜻을 모아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을 기탁하게 됐다"고 말했다.

같은 날 정읍시폐브라이트협회(회장 최숙정)도 정읍시청을 방문해 회원 10명이 한뼘 한뼘 정성을 들여 제작한 수제면 마스크 300개(210만 원 상당)를 전달했다.

최숙정 회장은 "회원들이 정성 들여

제작한 수제면 마스크가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이라며 기탁 소감을 밝혔다.

정읍물차연합회(대표 김택병)도 정읍시청을 방문해 성금 150만 원을 전달하며 코로나19 극복에 힘을 보탰다.

김택병 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해 지역경제는 침체 되고 시민들의 불안감이 날로 가중되고 있다"며 "지역사회에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성금을 기탁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태인면 관동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김술기(6세·사진) 어린이도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역주민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김술기 어린이는 "작은 돈이지만 아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계속 응원할게요"라며 오랜 기간 모은 저금통을 전달했다. 저금통



에는 어린이가 모은 저지와 동전 3만9,430원이 들어있었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 도움을 주신 기부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한편, 성금과 물품은 공동모금회를 통해 코로나19 예방과 극복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한 나무에 4000송이가 열리는 포도나무.

‘고창기네스 선발’ 관심 봇물

한 나무에 4000송이 열리는 포도나무 등 접수... 3월 말까지

고창군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고창기네스'에 군민들의 관심과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고창군은 '고창기네스' 선발이 처음 시도된 것으로 군민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판단, 기관 단체 등을 직접 방문 홍보활동에 주력했다.

군은 '고창기네스' 신청이 줄을 잇고 있지만 아직도 망설이고 주저하는 분들이 있다고 보고, 고창기네스에 신청할 수 있도록 마지막 집중홍보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공음면에 살고 있는 이종근씨는 "고창군에서 최고, 최초, 최대 등 '고창기네스'를 선발한다는 것은 처음 들어봤고, 정말 재미있고 흥미롭다"고 말하면서 "최고의 장서가 고창기네스에 접수를 했다. 또 한 나무에 4000송이가 열리는 포도나무, 최다 자력증 보유자, 가장 오래 재직한 이장, 가장 오래 홈페이지에 게재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고창 기네스에 도전을 희망하면 '고

창을 사랑하는 누구나' 고창군홈페이지→공지사항(4599번) 또는 고시/공고란(14601)에서 '고창 기네스 선발요강'을 클릭하고 신청서를 다운받아 이메일 (aza223@hanmail.net) 또는 FAX(063-560-2259)로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기네스 자료들은 우선 행정기관 자료를 통해 확인 점검하고, 현지 조사 등을 통해 수정 보완한 후 심사위원회 최종 심사로 선정 한다.

고창군청 고미숙 군정홍보팀장은 "고창기네스" 선발 작업은 고창군에서 처음 시도되는 것으로 무엇보다 군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며 "누구나 신청 또는 추천이 가능하므로 망설이지 말고 기네스에 도전해 보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고창 기네스에 선발되면 '인증서'를 수여하고, '고창기네스' 책자 발간, 매월 발행되는 고창소식에 연재, 군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고품질 사료용 옥수수 생산

조사료 자급률 향상 기대

정읍시는 쌀 생산 적정성 유지와 유희농을 활용한 토지 이용도 증대를 위해 논재배 옥수수 사일리지 장기저장 기술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논에서 벼 대신 사료용 옥수수를 재배하면 쌀 수급을 조절하면서 질 좋은 풀 사료를 생산할 수 있어 수입 풀 사료 대체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추진 목표인 풀 사료 자급률 90%를 달성하는 데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옥수수는 축산능가가 가장 좋아하는

여름철 사료작물로서 사료가치가 우수하고 수량이 많으며 당도가 높아 닭근육을 만드는 데 적합하다. 하지만 옥수수 수확 시 발생하는 곰팡이병과 독소 등으로 인해 가축 먹이가 오염되어 장기저장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

이에 따라 사일리지 생산 시 병해와 부패를 막기 위해 싹틔운 생성 균주를 접종한다.

싹틔운 생성 균주 접종을 통해 품질 좋은 사일리지 생산은 물론 장기간 안전저장을 도모할 수 있어 조사료 자급률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읍=김대환 기자



우리가족 면역을 생각한 NK프로젝트

N·1

엔·원



신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 **NK 프로젝트 N·1**

연세대학교 임상영양연구소 이종호교수 연구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이광원교수 연구팀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만든 기능성 발효유

☑ **NK프로젝트 N·1**

• nF1 + 카제이균 + 비피더스 유산균 함유

☑ **N·1이 NK세포에 주목합니다.**



푸르밀 NK프로젝트 홍보대사 **하지원**